

# 금융·항공업계, 겨울철 여행객 잡기 안간힘

### 광주은행 환전 이벤트·농협은행 송금페스티벌 이용객 상품권 제주항공 여권 간편 스캔 도입·카카오 페이 결제 할인 이벤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융·숙박·항공업계가 남은 겨울철 여행객 수요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대 80% 환율 우대와 상품을 내건 환전 이벤트가 각 은행에서 이달까지 진행된다.

광주은행은 오는 28일까지 '겨울여행 환전이벤트'를 통해 환전 이용객에게 최대 80% 환율을 우대한다. 미 달러·엔화·유로화는 80%까지, 위안화는 50%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계좌를 지닌 대학(원)생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 해외여행상품권이나 기내용 캐리어를 증정한다.

광주은행 신용·체크카드 항공·관광업종에서 10만원 이상 사용하거나 은행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가한 300명에게는 커피 상품권을 준다.

하나은행은 오는 29일까지 태국·베트남·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러시아 등 외국 통화 6종을 환전거래하면 자동으로 경품 응모를 할 수 있게 했다. 경품은 30만~50만원 상당 관광상품권 또는 하나머니 3만 점 등이 있다. 인터넷·스마트폰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한 고객에게는 따로 인터넷 면세점 할인권을 발송한다.

NH농협은행이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겨울 환전·송금 페스티벌'에 당첨된 이용객에게는 10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이나 1만원 상당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이

주어진다.

이달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2개 노선 모두 운항을 중단한 제주항공은 이외 국제선 서비스를 강화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7일부터 국제선 모바일 탑승권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여권 간편 스캔'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비대면 탑승수속 이용객이 늘면서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4월 도입했던 이 서비스를 확대했다. 올해 1월 한 달 간 제주항공 국제선에서 모바일 탑승권을 이용한 고객은 20만 38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 2070명) 보다 81.9% 급증했다.

또 21일까지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매일 선착순 1000명에게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당첨된 이용객에게는 캐리어 목베개와 'JJ라운지 이용권' 등이 주어진다.

제주항공은 모바일 예매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카카오페이 외에도 토스,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엘페이 등 10개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 숙박업계도 지역에서 13일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홀리데이 인 광주 관계자는 "코로나19 광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4일 이후 일주일 동안 객실 예약과 행사 취소 등 타격을 입었지만 이후 객실 점유율은 평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숙박객의 최근 여행 국가·경유지를 확인하고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는 등 예방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한 달 동안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 편수는 지난해에 비해 9편 늘었지만 여객 수는 2.9%(2028명) 감소한 6만 7754명을 기록했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10.34 (+1.46)	↑ 금리(국고채 3년) 1.28 (+0.01)
↑ 코스닥 684.78 (+1.86)	↓ 환율(USD) 1189.30 (-0.20)



##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오늘 사전계약 개시

### 6년 만의 새 모델 다음달 출시

기아자동차는 6년 만에 새로운 모델을 공개한 4세대 쏘렌토(사진)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기아차에 따르면 이날 4세대 쏘렌토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 정보를 공개하고, 다음달 출시에 앞서 20일 사전계약을 시작한다.

신형 쏘렌토는 현대-기아차 SUV로는 최초로 적용된 신규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간활용성을 강화했다. 전장은 10mm 길어졌고, 휠베이스는 35mm 늘어난 2815mm다. 동급 중형 SUV에 비해 확연히 넓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구현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신형 쏘렌토는 대형 SUV에만 탑재됐던 2열 독립 시트를 동급 최초로 적용하고, 3열 시트 각도를 조절하는 등 탑승 편의성도 강화했다. 경량화 소재로 중량을 80kg 가량 줄이면서 차체 골격을 다중 구조로 설계해 충돌 안전성을 강화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4세대 쏘렌토는 '스마트

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했다. 최고출력 230마력(PS), 시스템 최대토크 35.7kgf·m의 힘을 발휘한다. 연비는 15.3km/l (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이다.

디젤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D2.2'를 적용했고, 현대차그룹 최초로 습식 8속 DCT(더블 클러치 변속기)인 '스마트스트림 습식 8DCT'를 변속기로 채택했다. 최고출력 202마력, 최대토크 45.0kgf·m의 힘을 구현하며, 연비는 14.3km/l (5인승, 18인치 휠, 2WD 기준)이다.

신형 쏘렌토 판매 가격은 디젤 모델이 ▲트렌디 3070만~3100만원 ▲프레스티지 3360만~3390만원 ▲노블레스 3660만~3690만원 ▲시그니처 3950만~3980만원 범위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프레스티지 3520만~3550만원 ▲노블레스 3800만~3830만원 ▲시그니처 4070만~4100만원 내로, 최종 가격은 출시 후 공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아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중기부, 중소기업 활용 한류 마케팅 달력 제작

올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한류 마케팅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달력이 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연간 한류 행사 계획과 지원 내용을 정리한 '중소기업 한류 마케팅 캘린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달력에는 K콘, K콘텐츠 엑스포, 한류 박람회, K푸드 행사 등 한류 행사가 연간·월별·국가별로 정리돼 있다. 행사명을 비롯해 개최 지역과 일정, 지원 규모와 내용, 주최·주관기관, 참여 방법 등을 볼 수 있다.

**무안 마늘 48t 대만 간다**      무안농협은 19일 마늘 48t에 대한 '대만 수출 기념식'을 갖고 수출 다변화로 과잉 생산으로 발생한 마늘 재고물량 300t을 소화하기로 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한전, 도미니카 대학에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전력(대표 김중갑)이 나주 에너지 벨리 입주기업과 협력 개발한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도미니카 대학에 구축했다.

한전은 지난 18일 도미니카 뿌까따마 대학에서 '한전-중소기업 협력 K-BEMS 수출 시범사업 준공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한전형 에너지관리시스템(K-BEMS)은 전기·가스·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제어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했다. 한전은 지난 10개월 동안 에너지 벨리 입주기업 J&D전자와 계측기·센서

를 구축하고 현지 한국기업인 ESD와 전기통신공사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준호 한전 신재생사업 차장, 김병연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 안겔 카노 도미니카 국가에너지위원회(CNE) 위원장, 알프레도 PUCMM대학 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전은 이 대학을 시작으로 현지 기업과 호텔 등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전과 지난해 11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3800만 달러(452억원) 규모 노후 배전망 개선공사 추가계약을 맺었다.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커지고 외제차 보험료 오른다

금융위 '2020년 상세 업무계획'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더 많은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은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상세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

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1분기 중 인상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자기부담 특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배탈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하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 광주경영자총협회장에 김봉길 회장 선임

### 임기 3년...26일 취임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6대 회장에 김봉길(74·사진) 삼각에프엠씨 회장이 선임됐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김봉길 회장을 광주경총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다.

오는 26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12층 연회장에서 열린 제40회 정기총회에서 김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할 방침으로, 신임 김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삼각에프엠씨와 삼각메

카트로닉스, 웰빙랜드 등을 설립했고, 기술보증기금 기보회 회장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기업협의회 회장, (재)녹수장학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한편 2014년부터 광주경총을 이끌어온 최상준(82) 회장은 26일 정기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다.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